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32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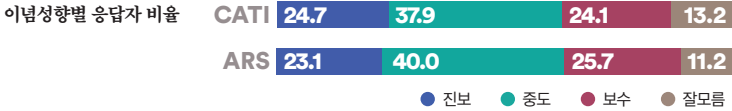
제47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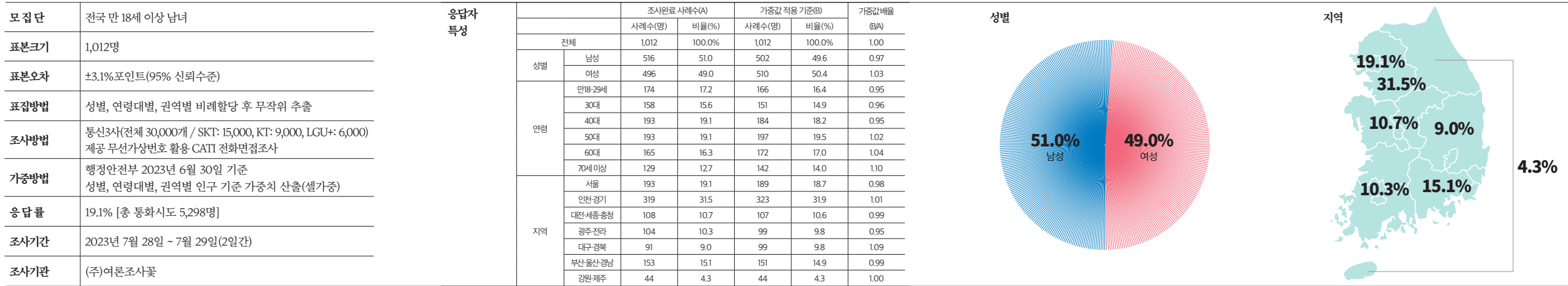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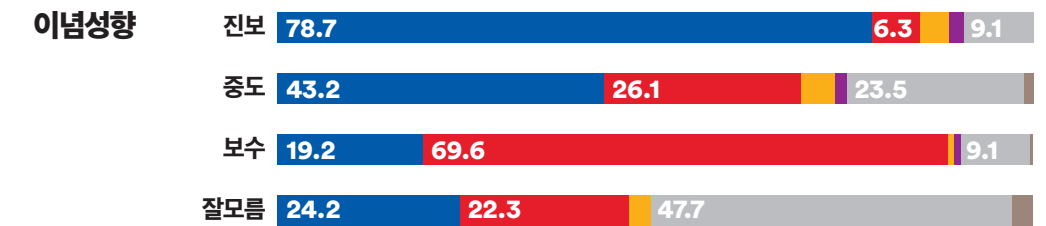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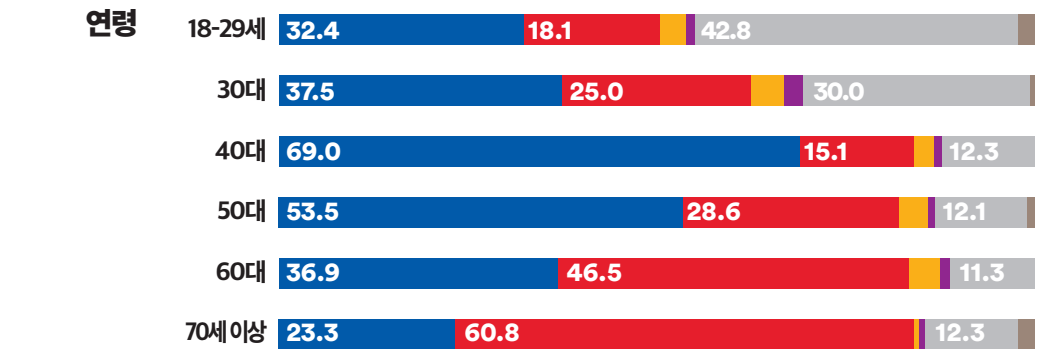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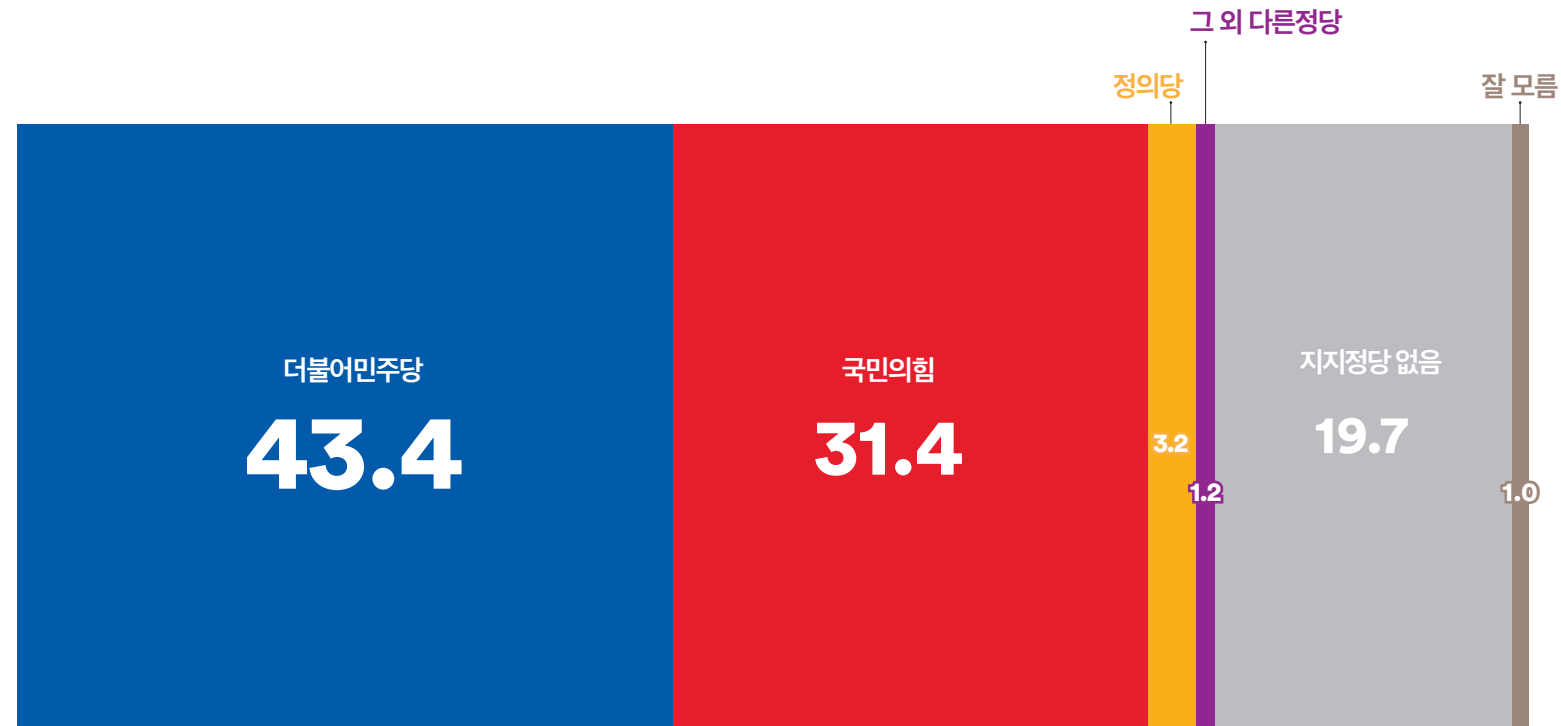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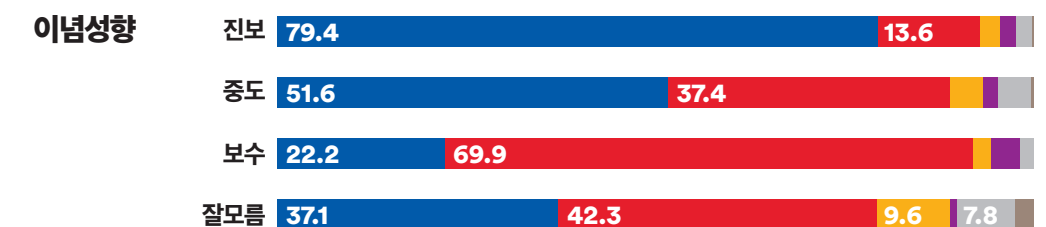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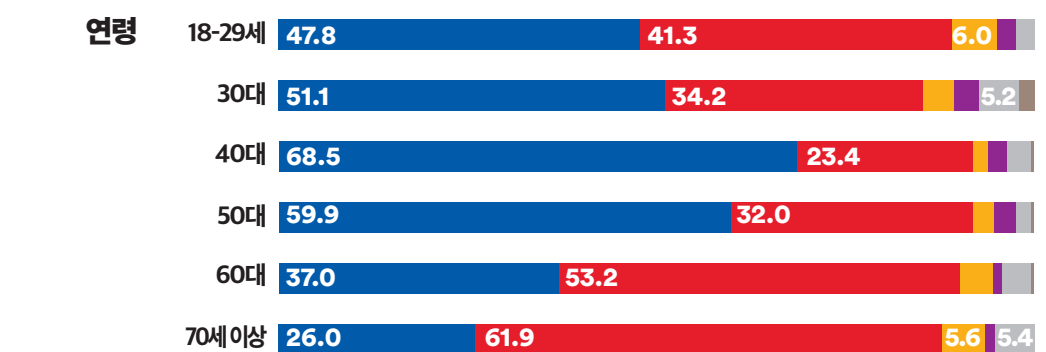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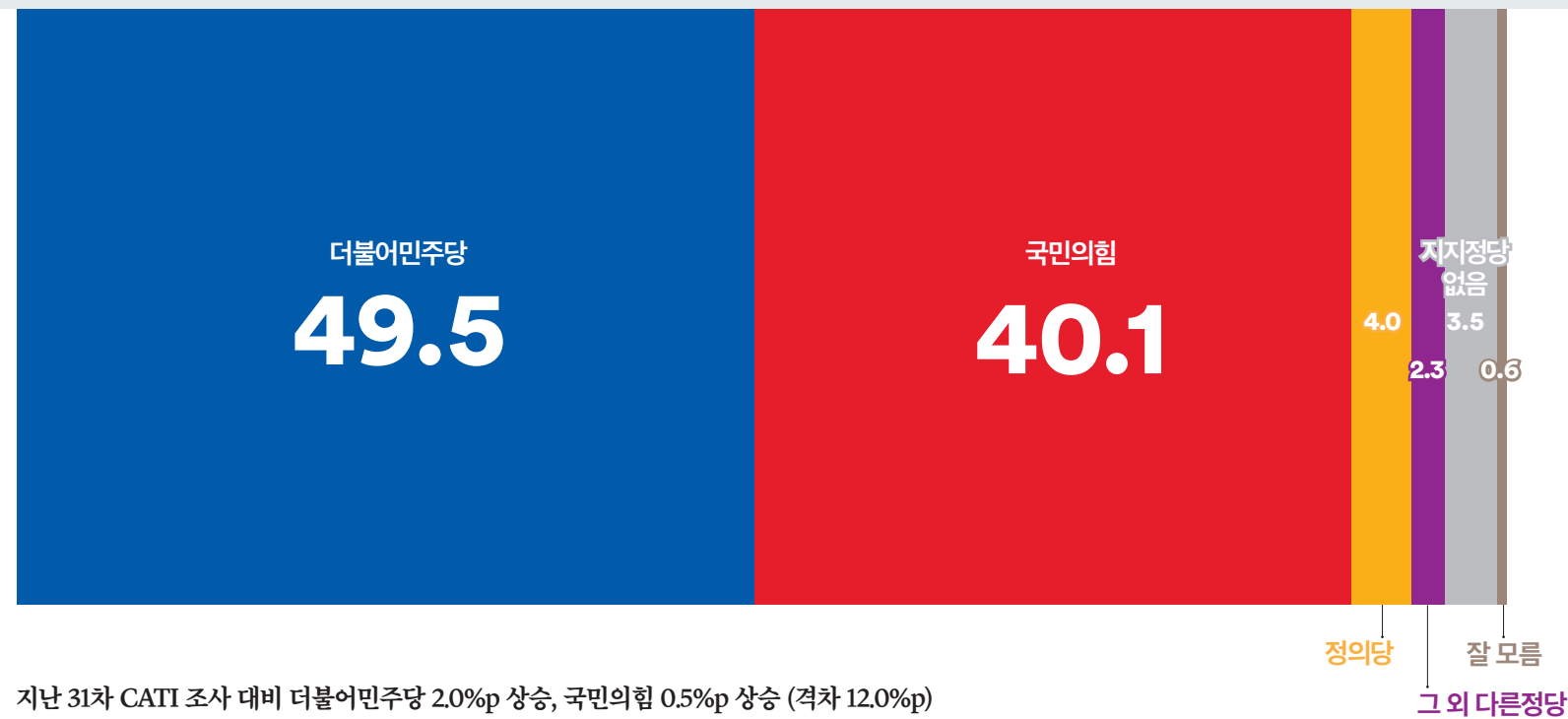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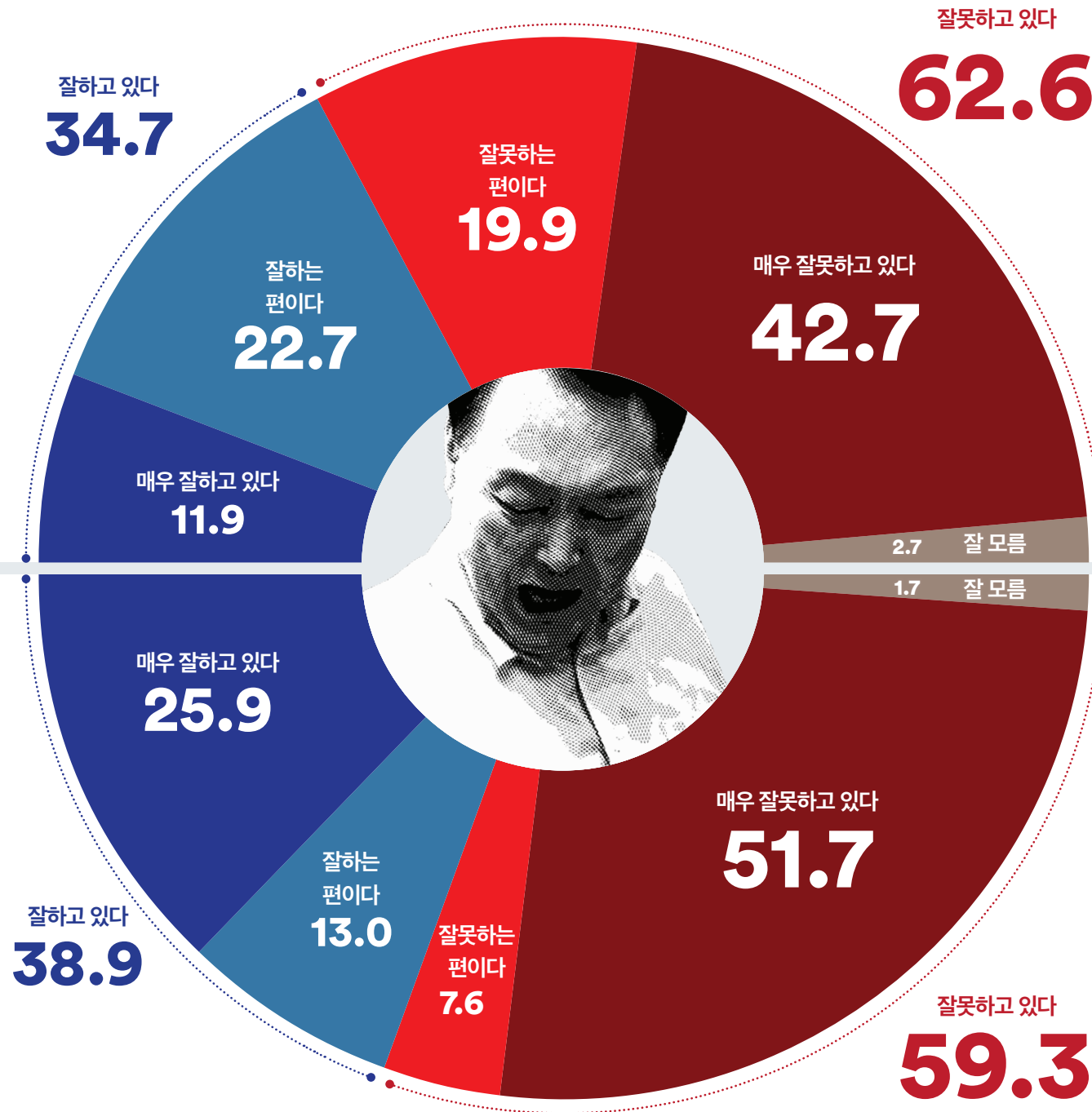


지난 31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0%p 상승, 국민의힘 0.5%p 상승 (격차 12.0%p)
 지난 46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6.3%p 하락, 국민의힘 5.8%p 상승 (격차 9.4%p)*
 전주 대비 ARS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하락하며, 양당간 격차는 한 자릿수 격차로 좁혀짐

* ARS 조사의 이념 성향 표집 비율이 전주 대비 진보층은 3.3% 줄어든 반면, 보수층은 4.5% 증가, 더불어민주당 하락 / 국민의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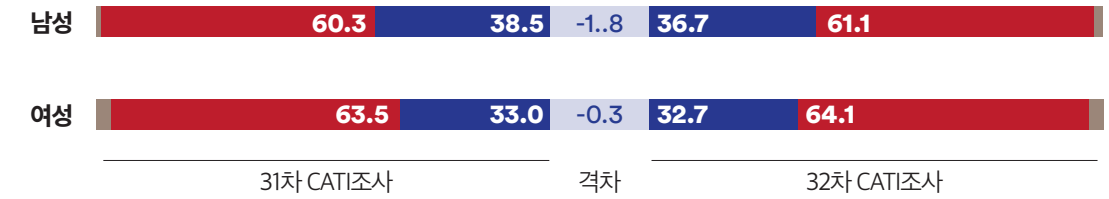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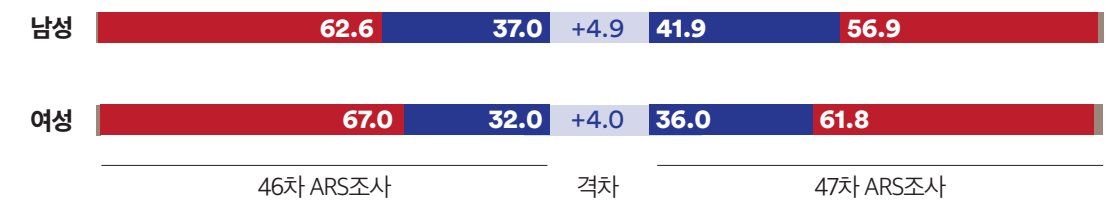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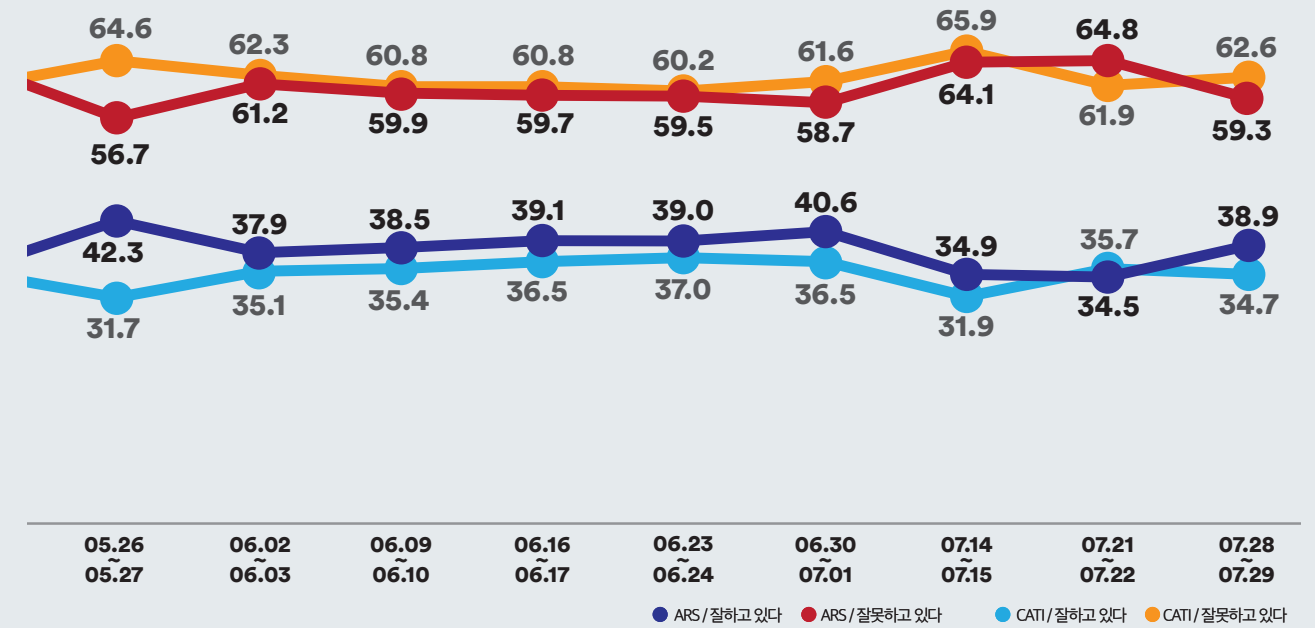
지난 31차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1.0%p 하락, 부정평가 0.7%p 상승 (격차 27.9%p)

지난 46차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4.4%p 상승, 부정평가 5.5%p 하락 (격차 20.4%p)

CATI 조사는 횡보, ARS 조사는 '긍정' 상승, '부정' 하락으로 격차 줄어들음. 20%p 이상의 격차로 부정 평가 우세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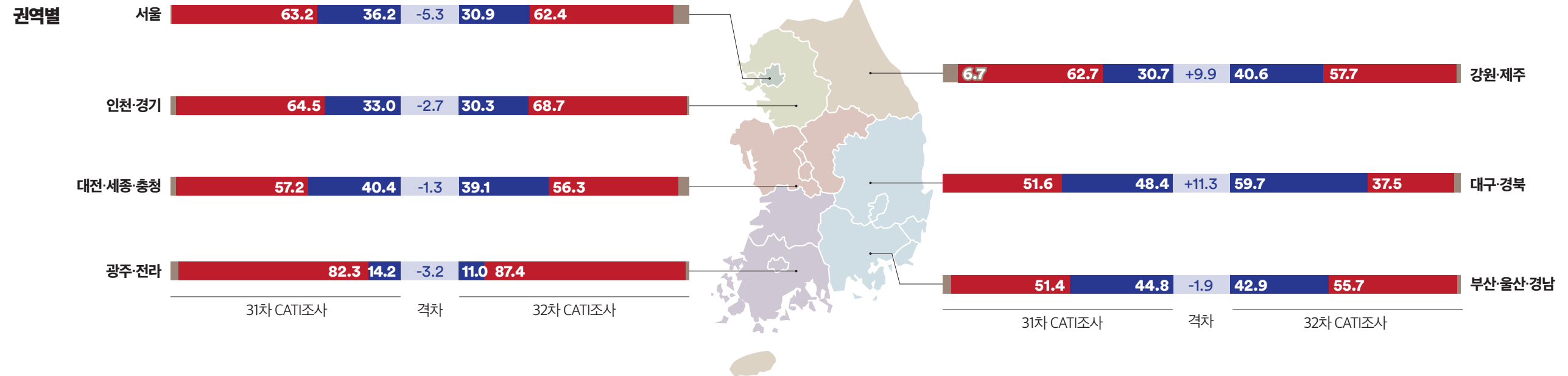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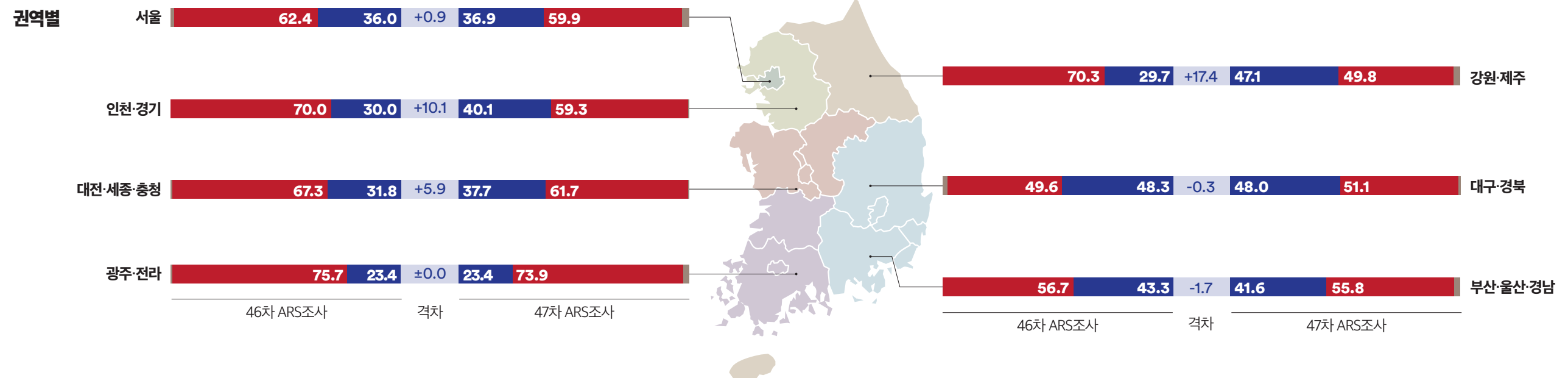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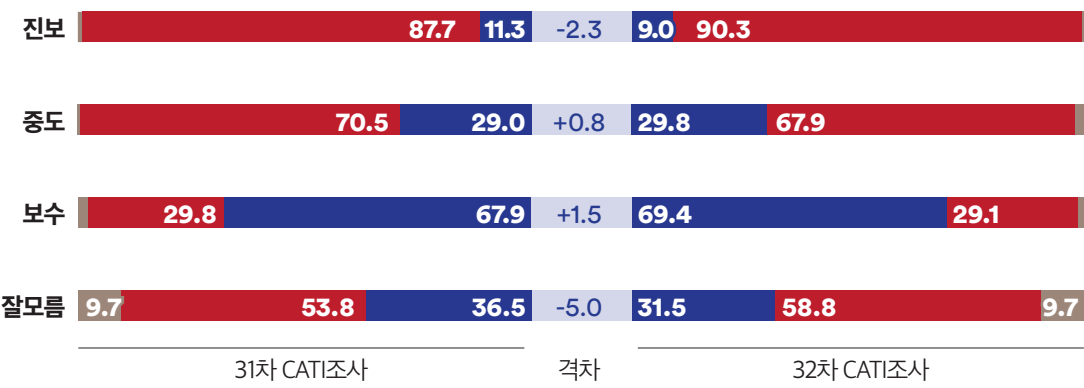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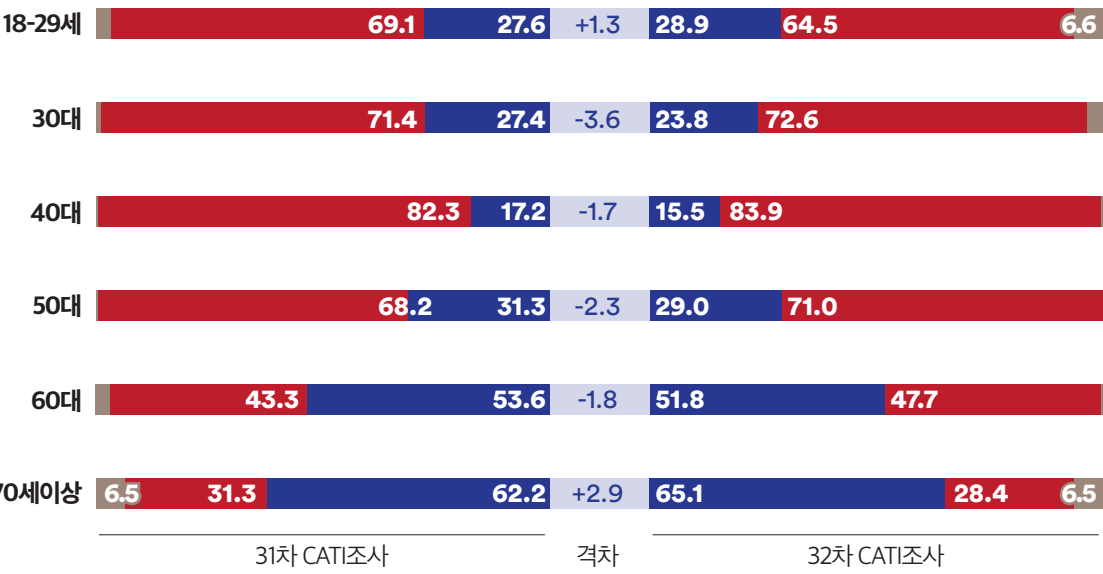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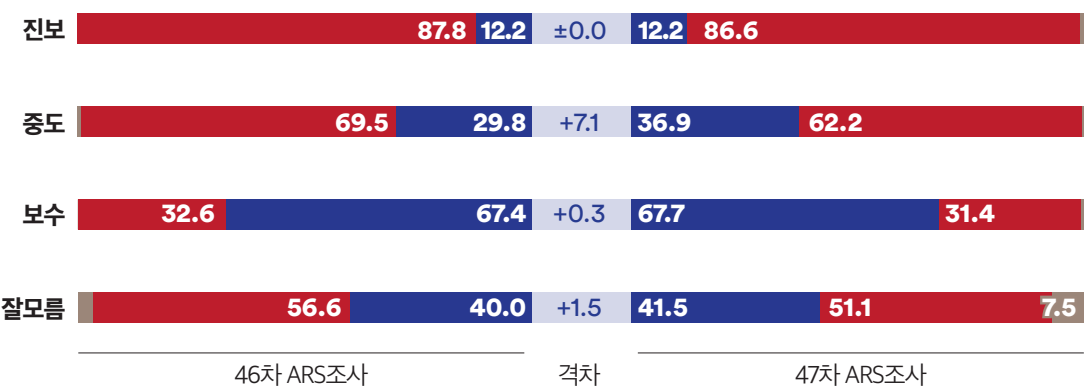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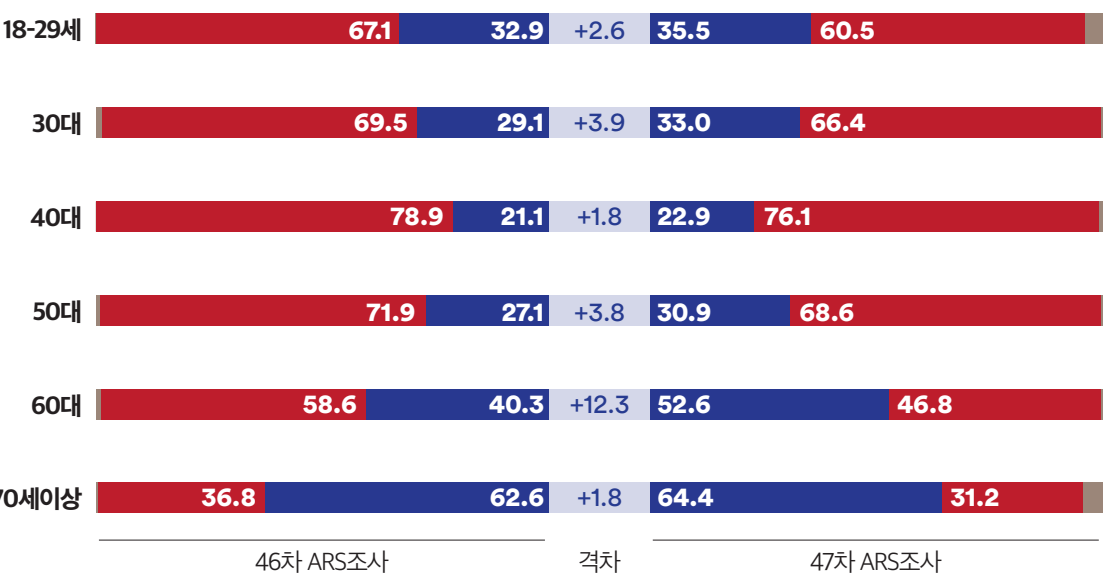


ARS

이념성향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장모 구속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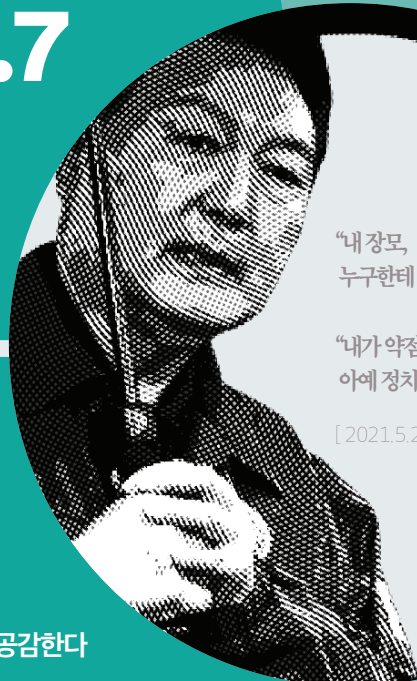
Q. 348억의 통장 잔고를 위조해 법정 구속된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대통령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61.1

매우 공감한다
44.7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이에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
[2021.5.26,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어느정도
공감한다
16.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8.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4.3

6.3 잘 모름

3.5 잘 모름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8.0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7.5

어느정도
공감한다
8.9

대통령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32.6

대통령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35.5

ARS

매우 공감한다
52.2

대통령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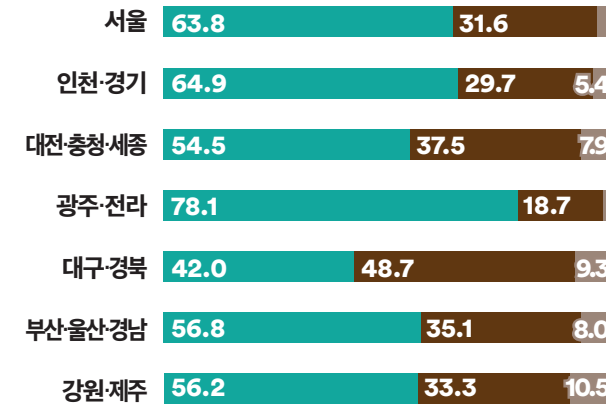
61.1

두 조사 모두 ‘공감한다’는 응답이 20%p 이상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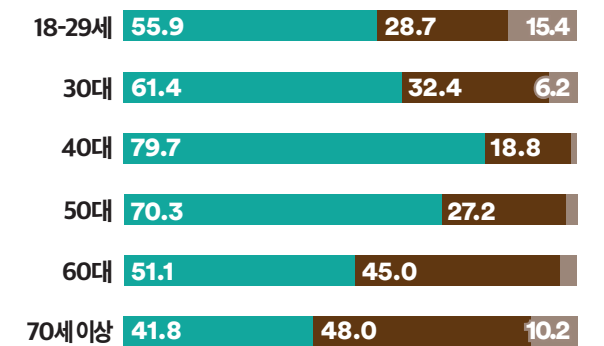
TK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 30~50대 응답층 (CATI는 18~29세 포함)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섬

70세 이상은 두 조사에서 모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섬

권역



연령



성별

남성

64.5

29.8

5.7

성별

남성

58.4

39.6

여성

57.7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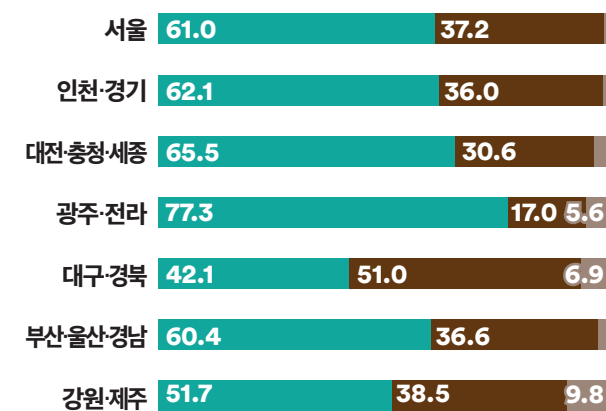
6.9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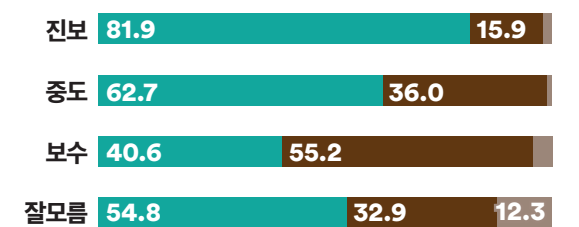
63.7

31.4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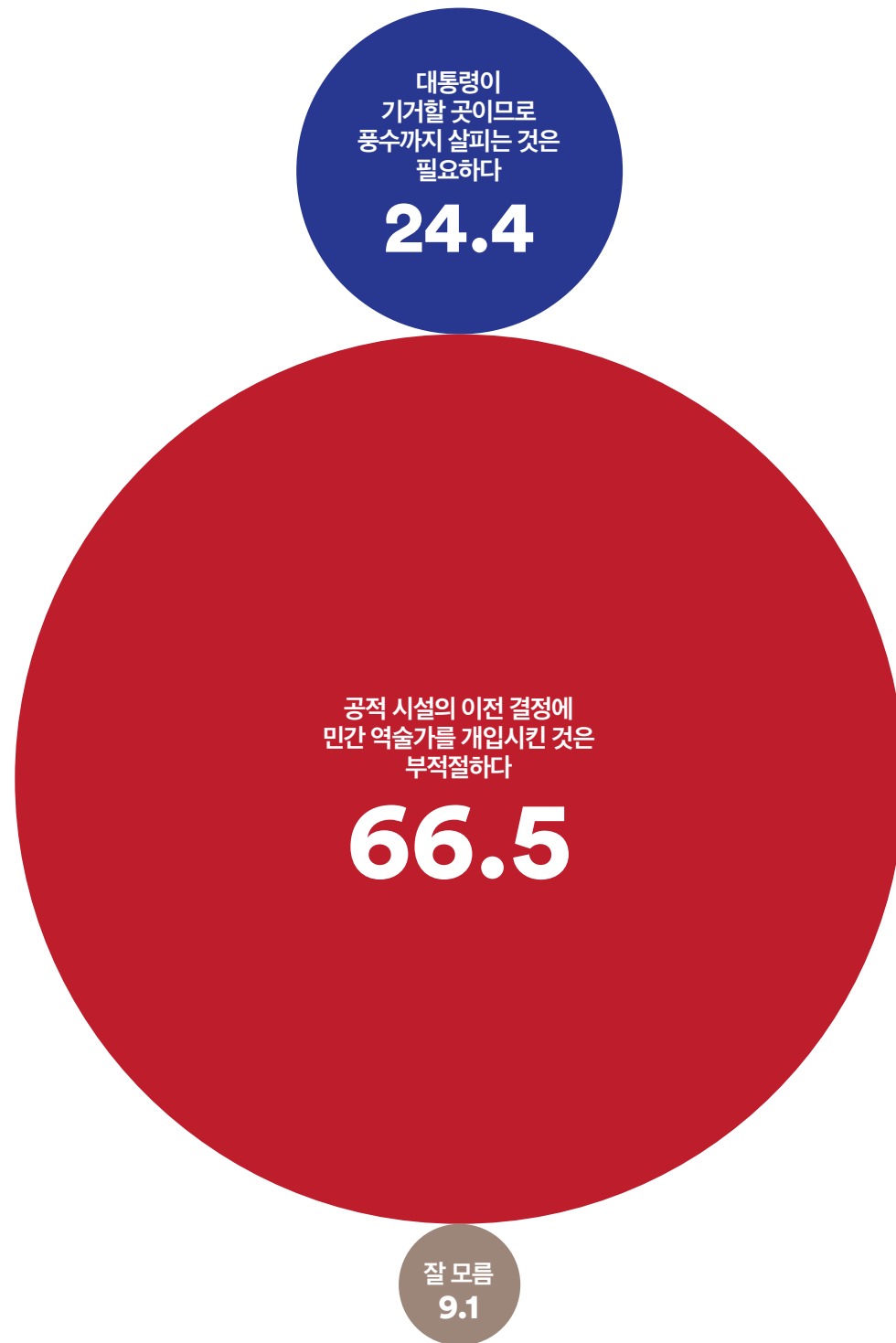
이념성향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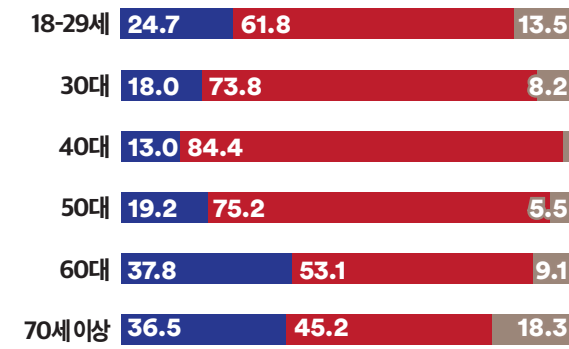


Q. 육군참모총장의 공관을 방문한 사람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가 백재권 씨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상가·풍수지리가가 관여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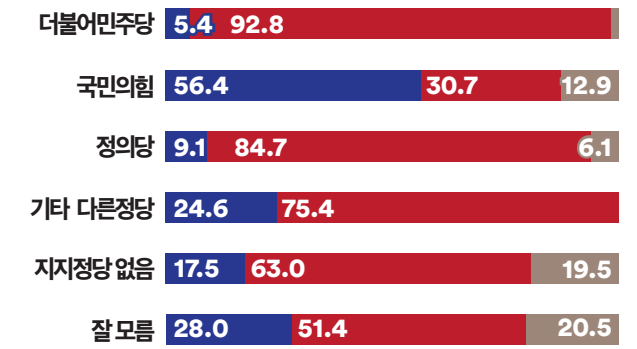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공적 시설의 이전 결정에 민간 역술가를 개입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응답
TK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 모든 연령대에서 모두 '민간 역술가를 개입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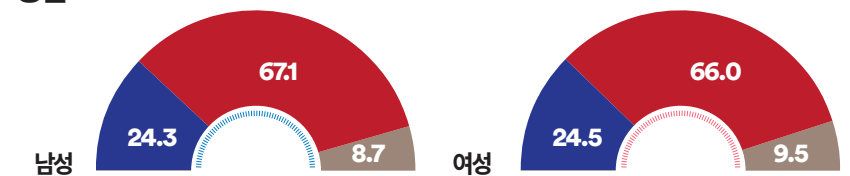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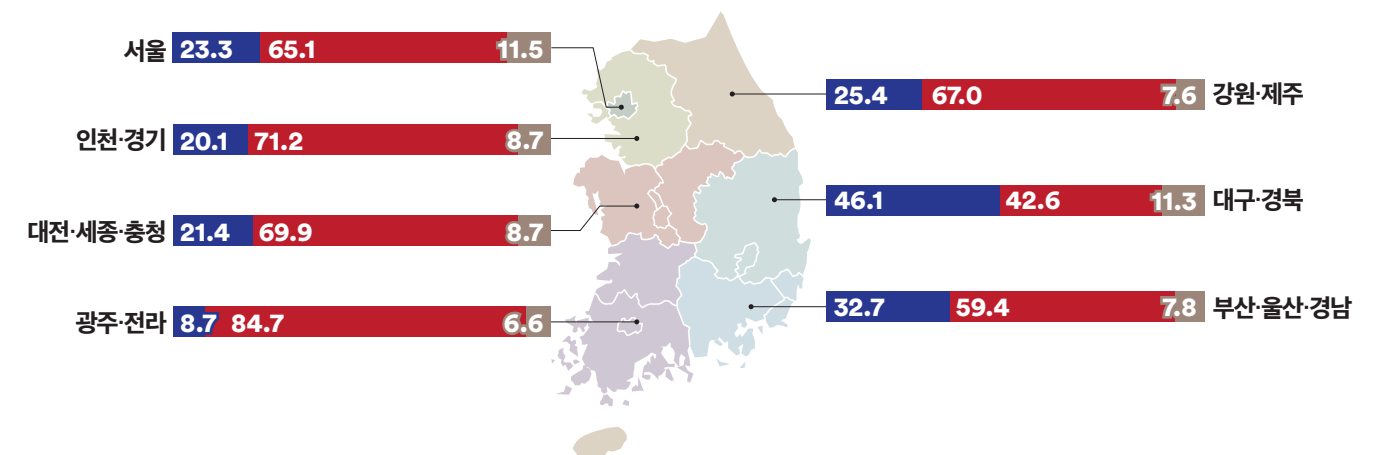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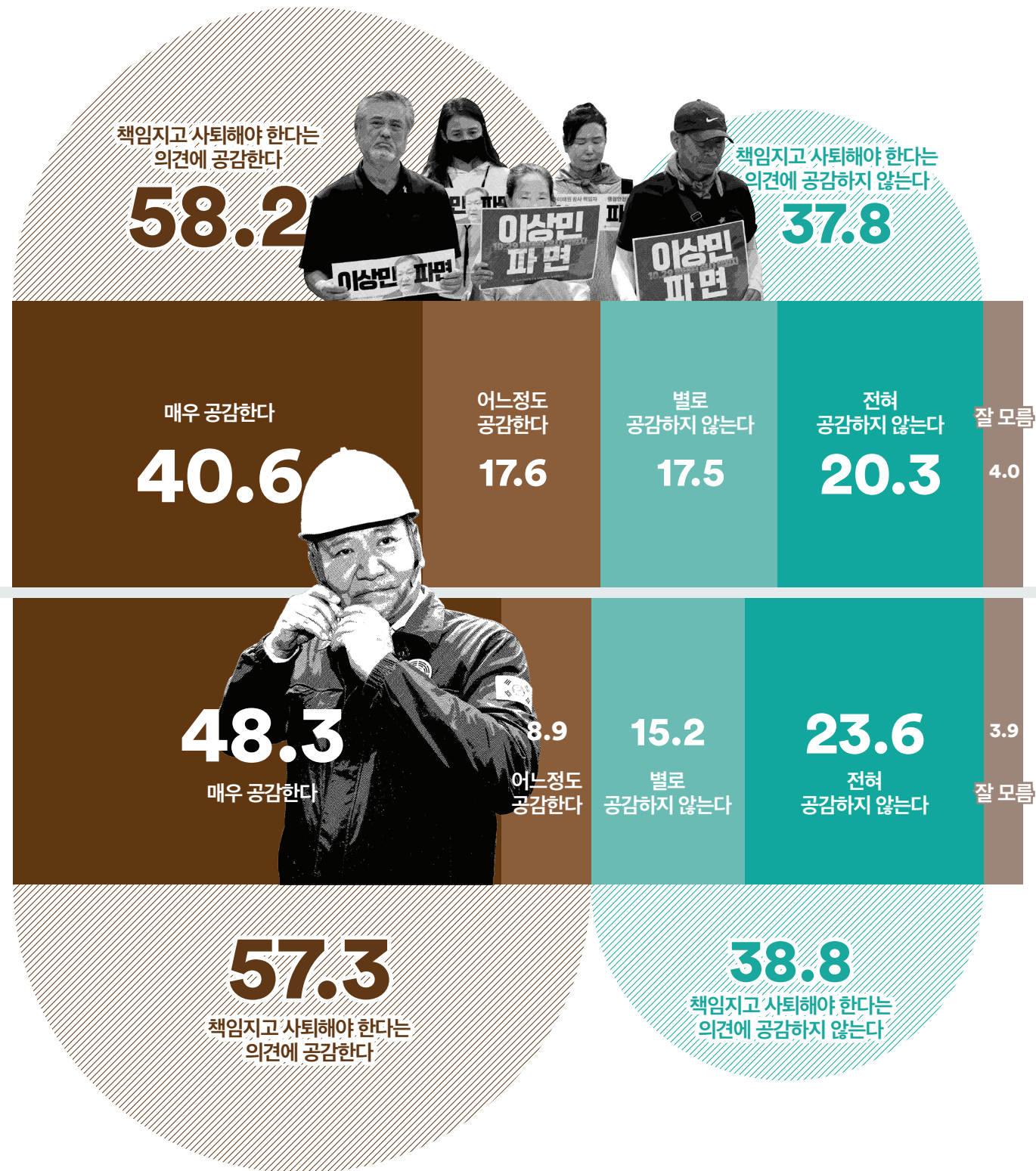
필요하다 부적절하다 모르겠다

10.29참사 책임, 이상민 장관 사퇴 주장

Q.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별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에서 발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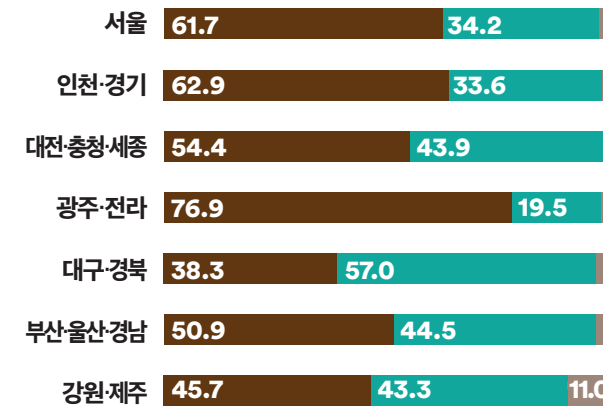
10.29 참사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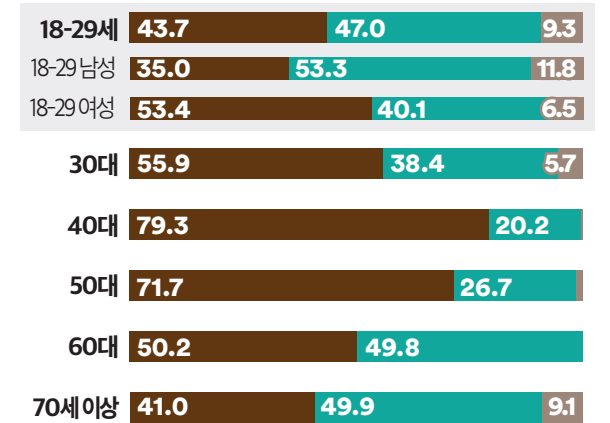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정도의 응답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
TK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 30-50대 응답층에서 '공감한다'는 응답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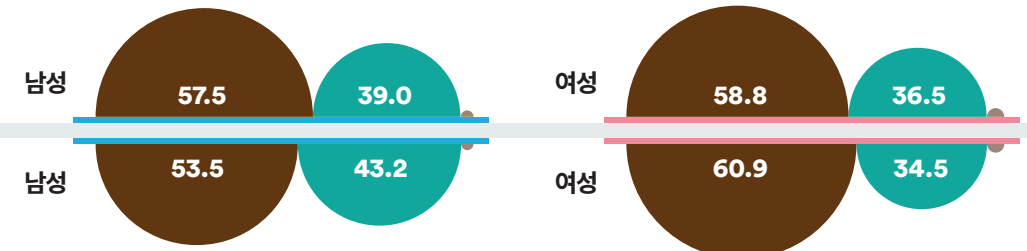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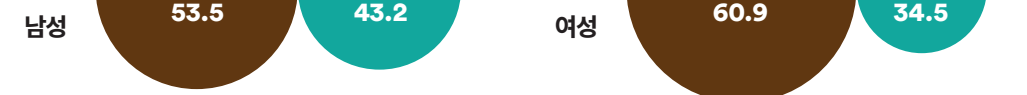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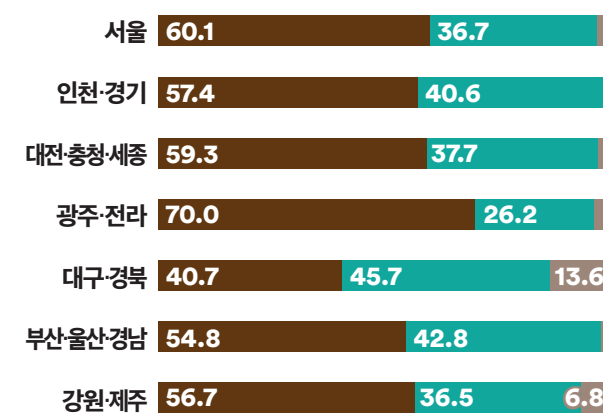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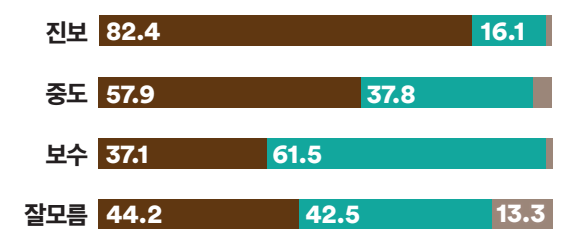
성별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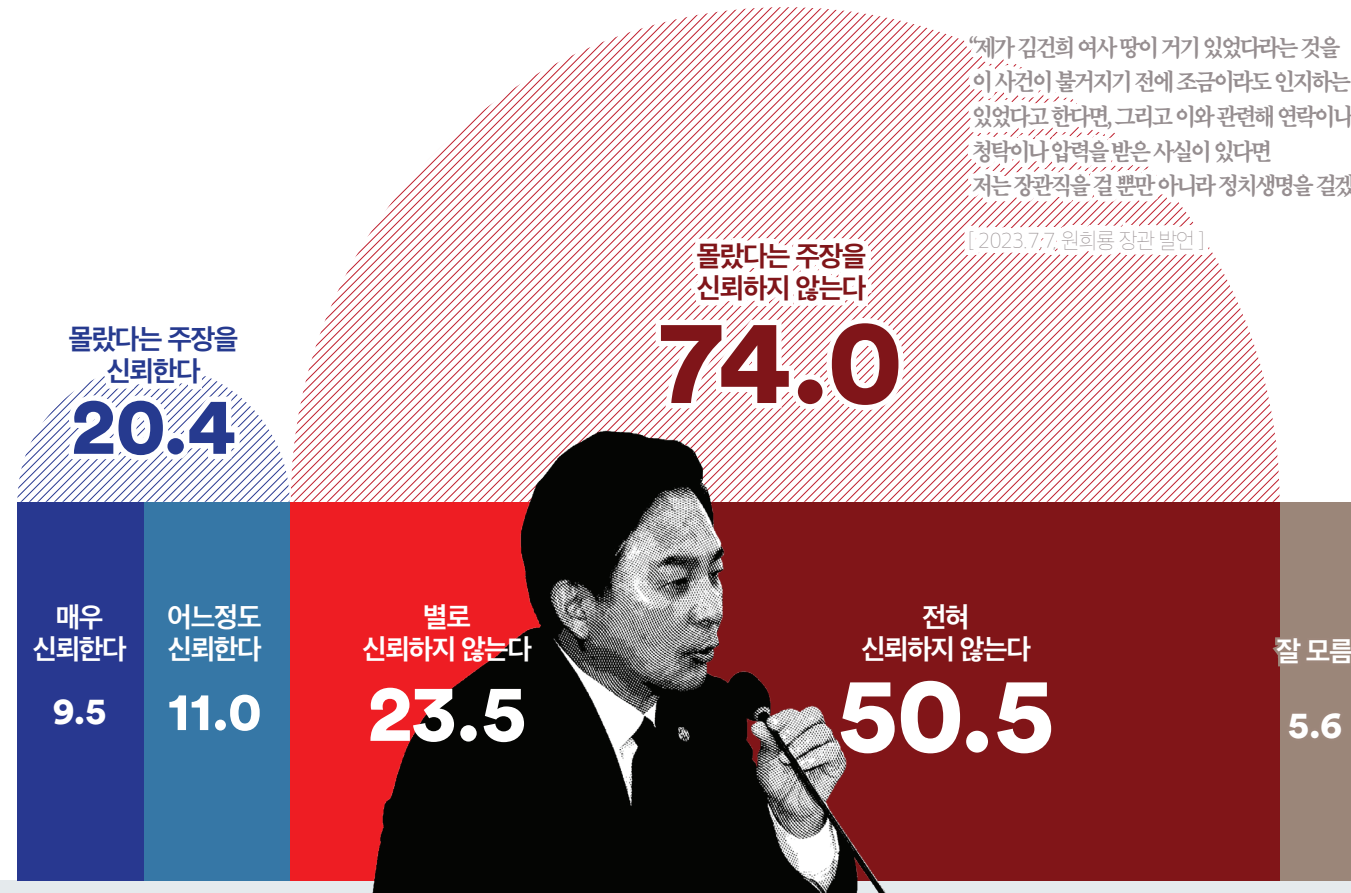


■ 사퇴의견에 공감한다 ■ 사퇴의견에 공감하지 않는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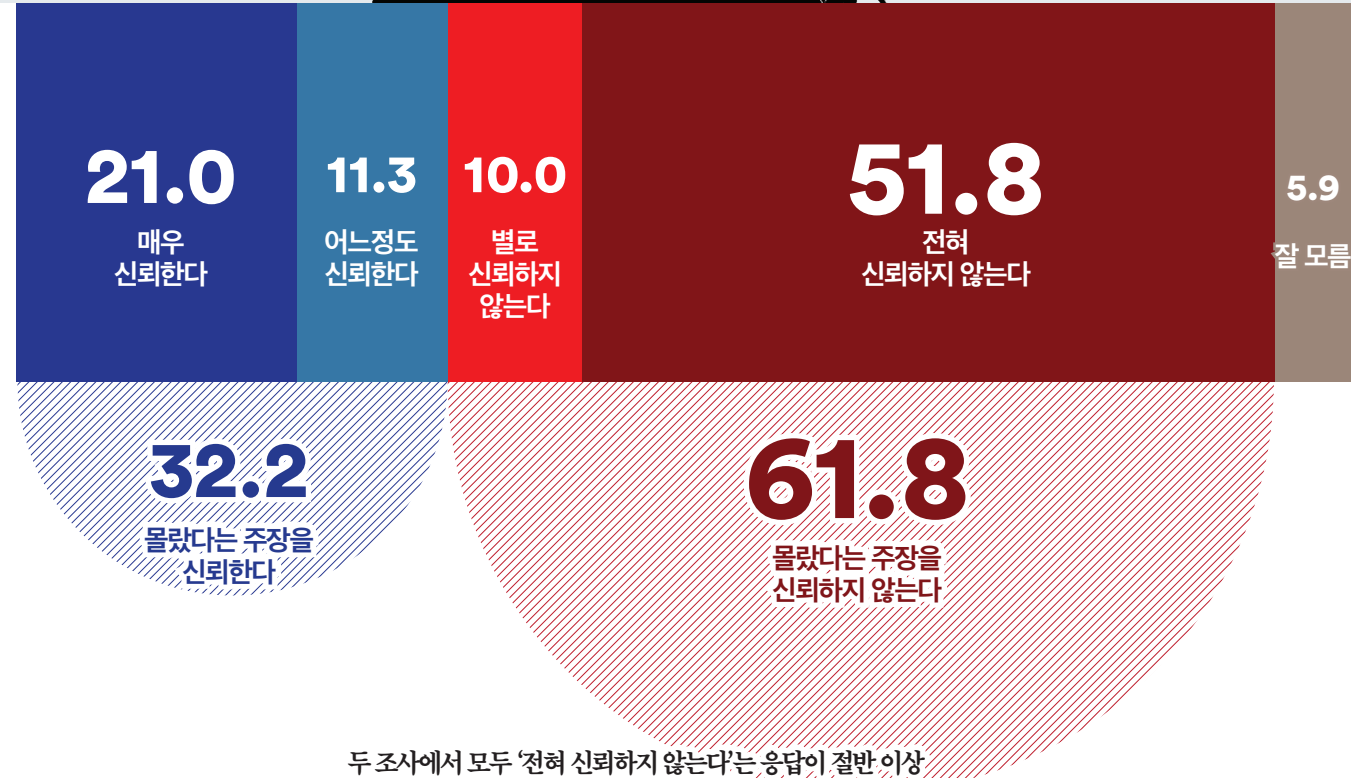


Q.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변경된 양평 고속도로 종점에 대통령 배우자 소유의 땅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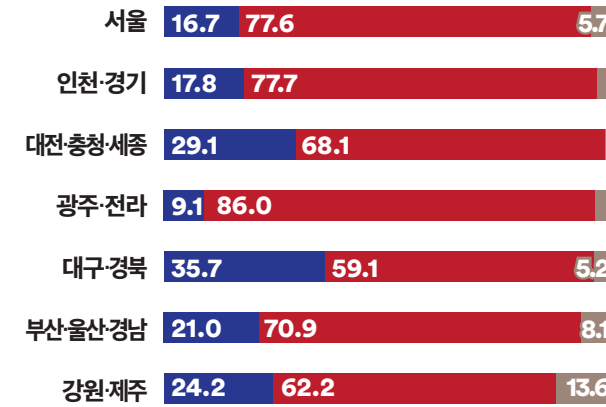


두 조사에서 모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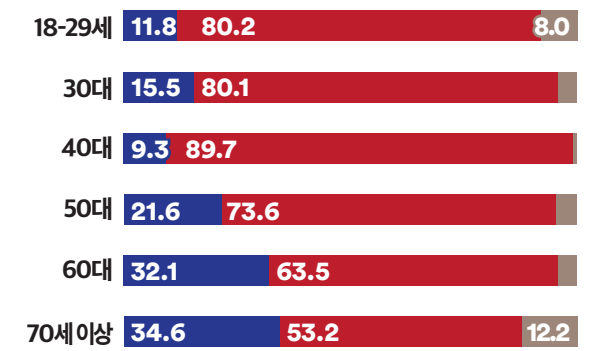
CATI 조사는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응답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ARS 조사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모든 권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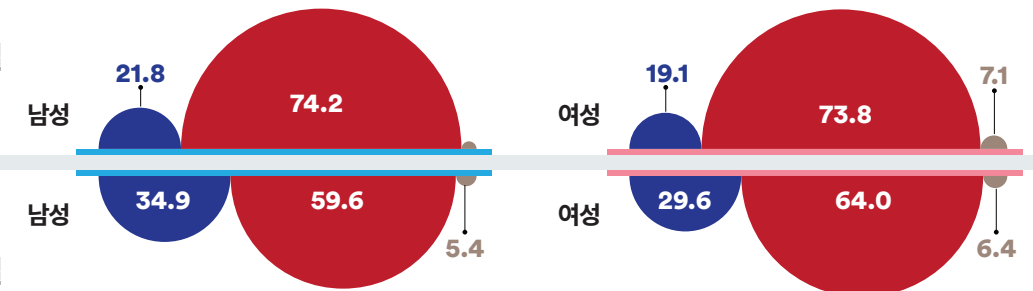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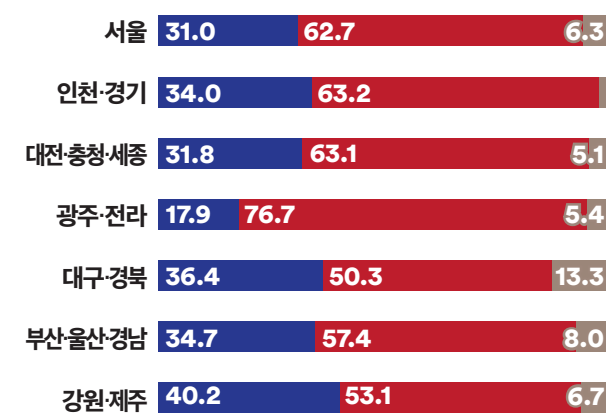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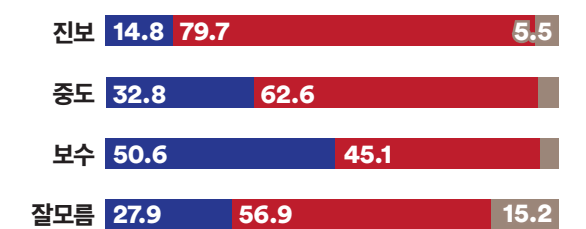
성별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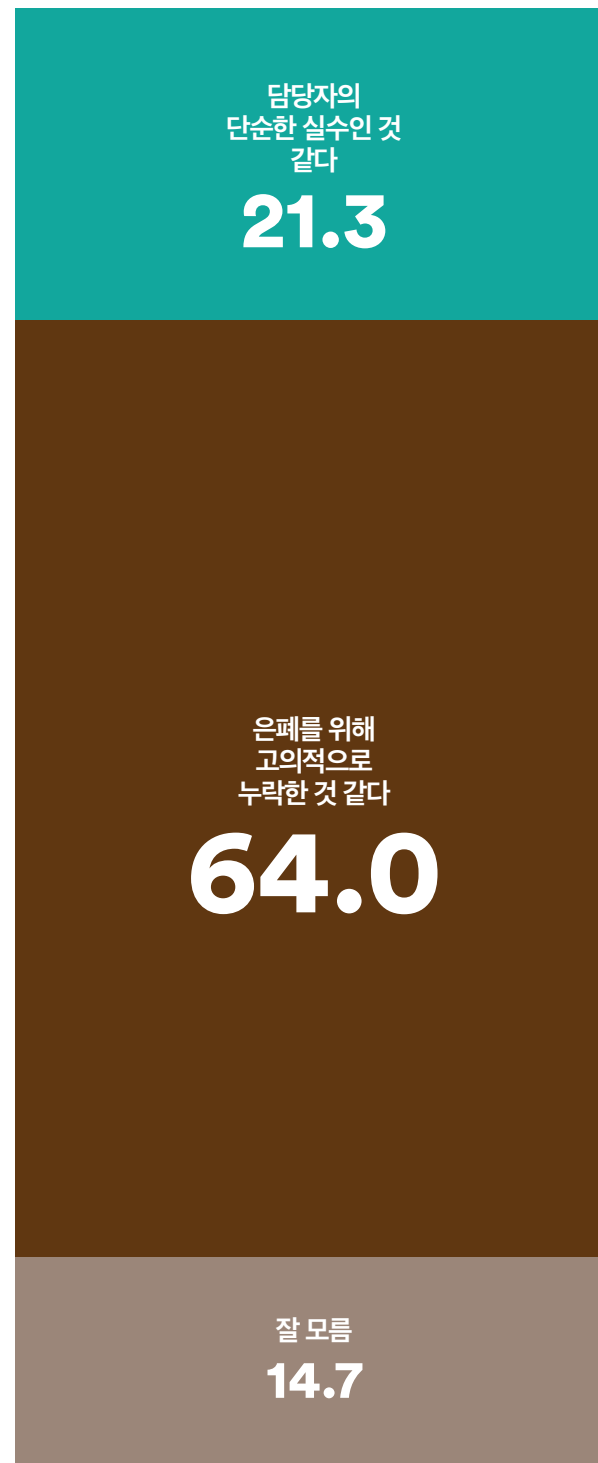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자료공개에서 누락되었던 주요 페이지

Q.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문건 중 일부 페이지가 누락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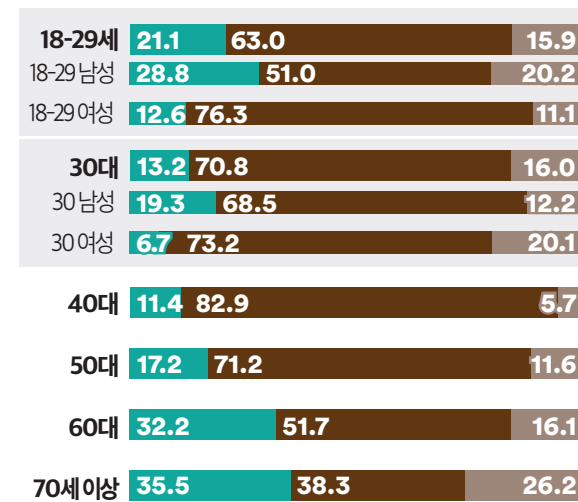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은폐를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같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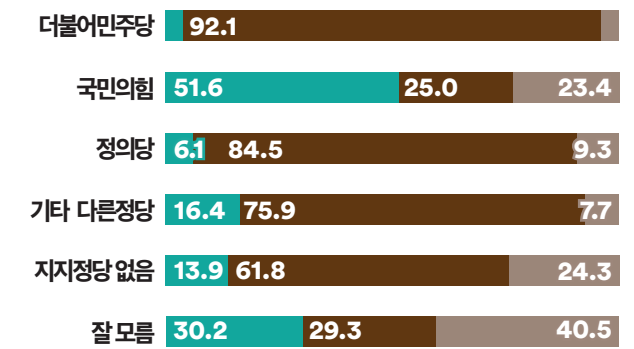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비판적 시각이 우세함

보수층에서도 43.1%가 '은폐를 위한 고의적 누락'이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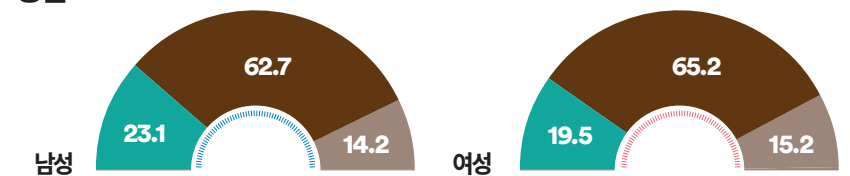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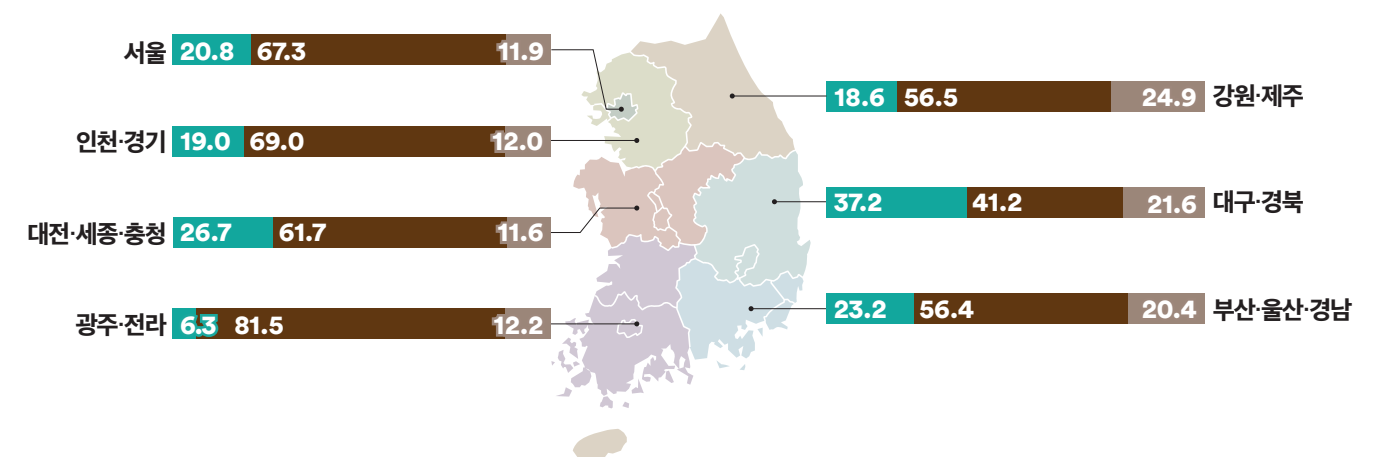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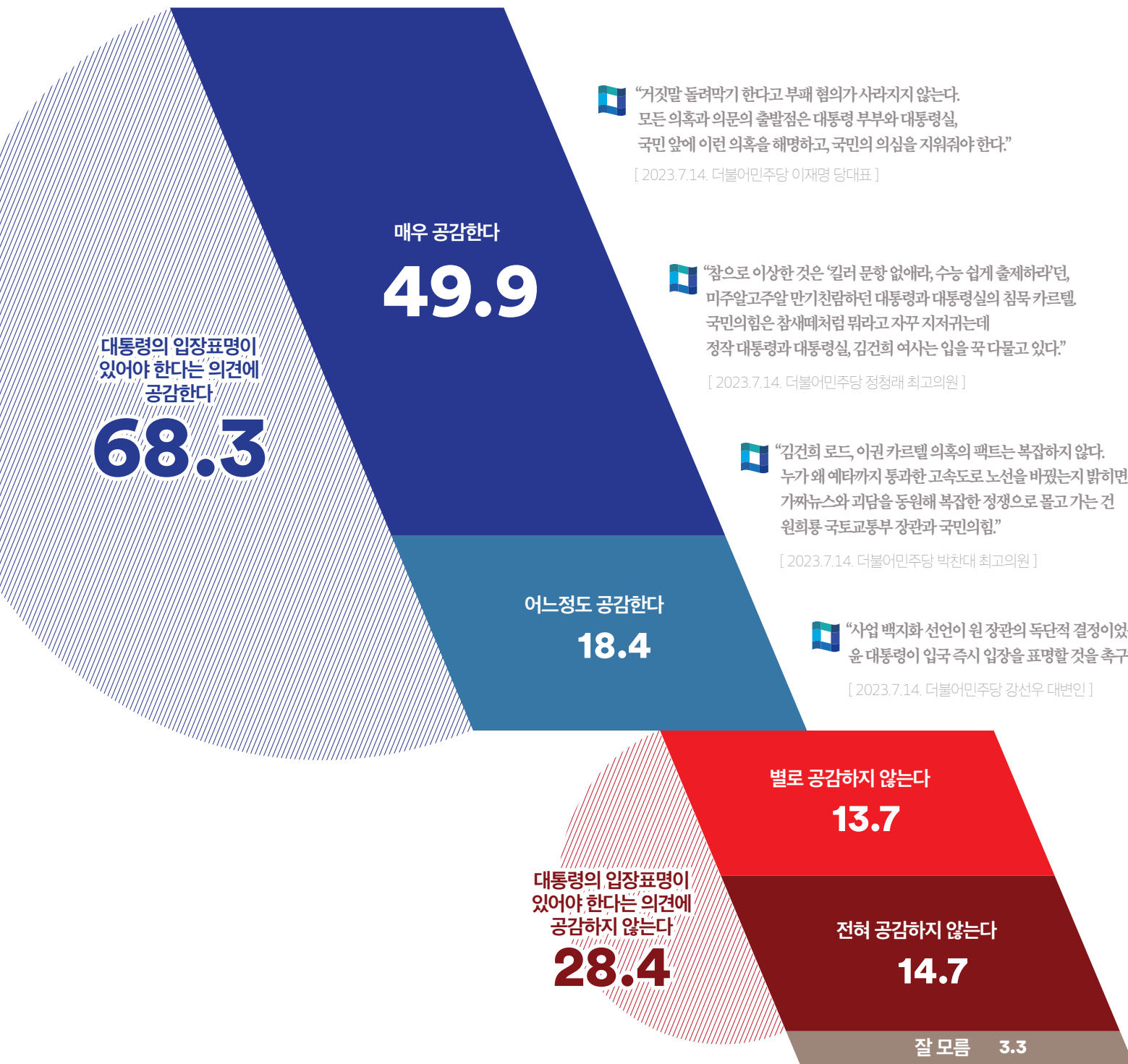


단순한 실수 고의적 누락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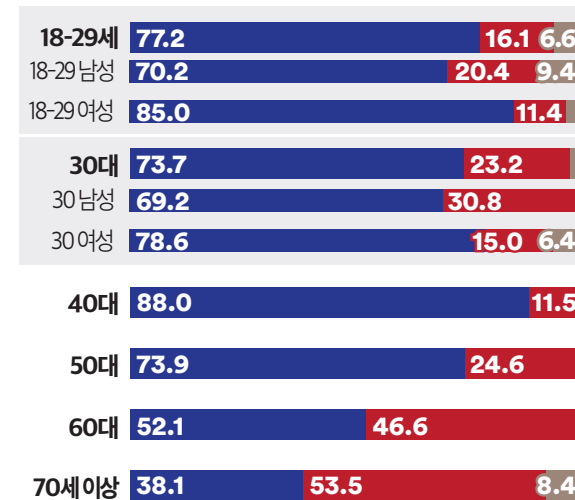
대통령의 입장표명 필요성

Q. 변경된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인근에 대통령이 재산신고한 부인 소유 땅이 있는 만큼,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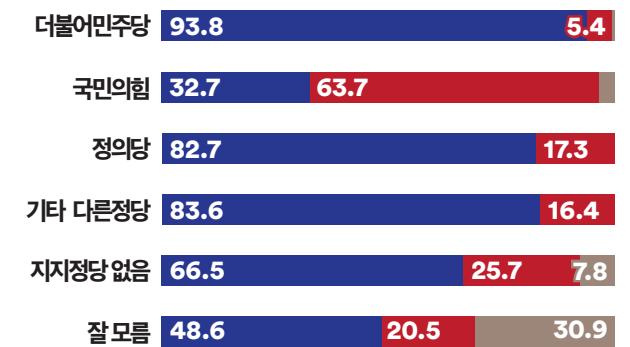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
모든 권역, 60대 이하 연령대,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섬
국민의힘 지지층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앞선 반면,
보수층은 ‘공감하지 않는다(53.0%)’, ‘공감한다(45.0%)’로 격차 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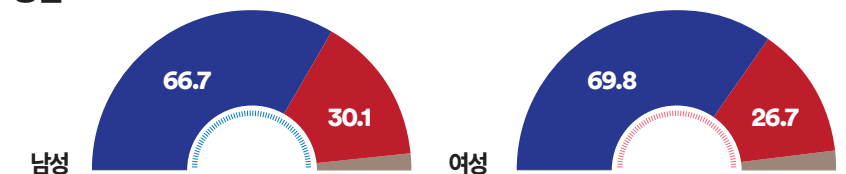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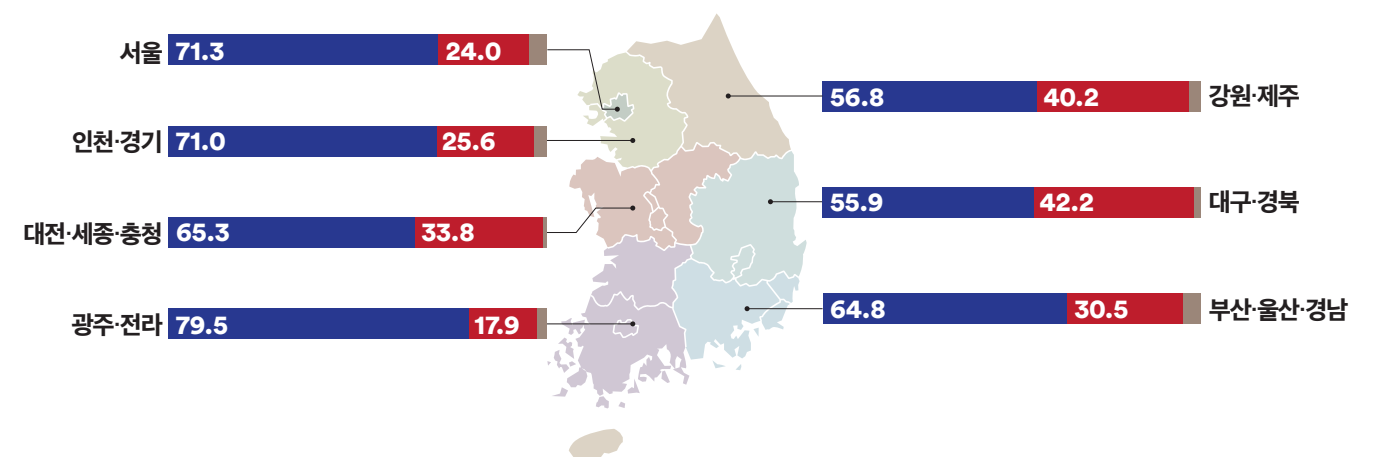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7월 종합 분석



CATI & ARS

정례조사 기준 CATI $n=4065$

정례조사 기준 ARS $n=4020$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7월 통합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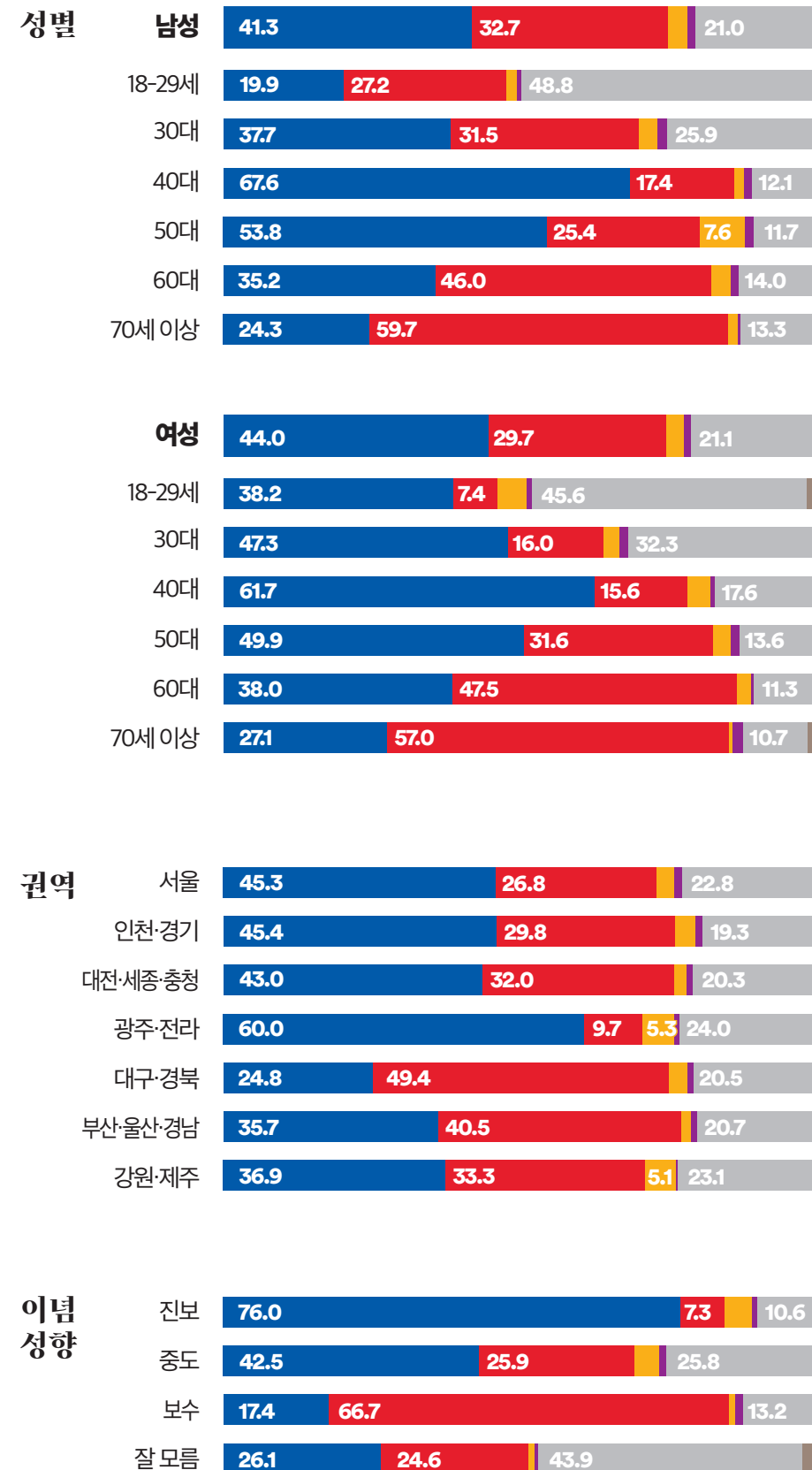
CATI

정례조사 기준 n=4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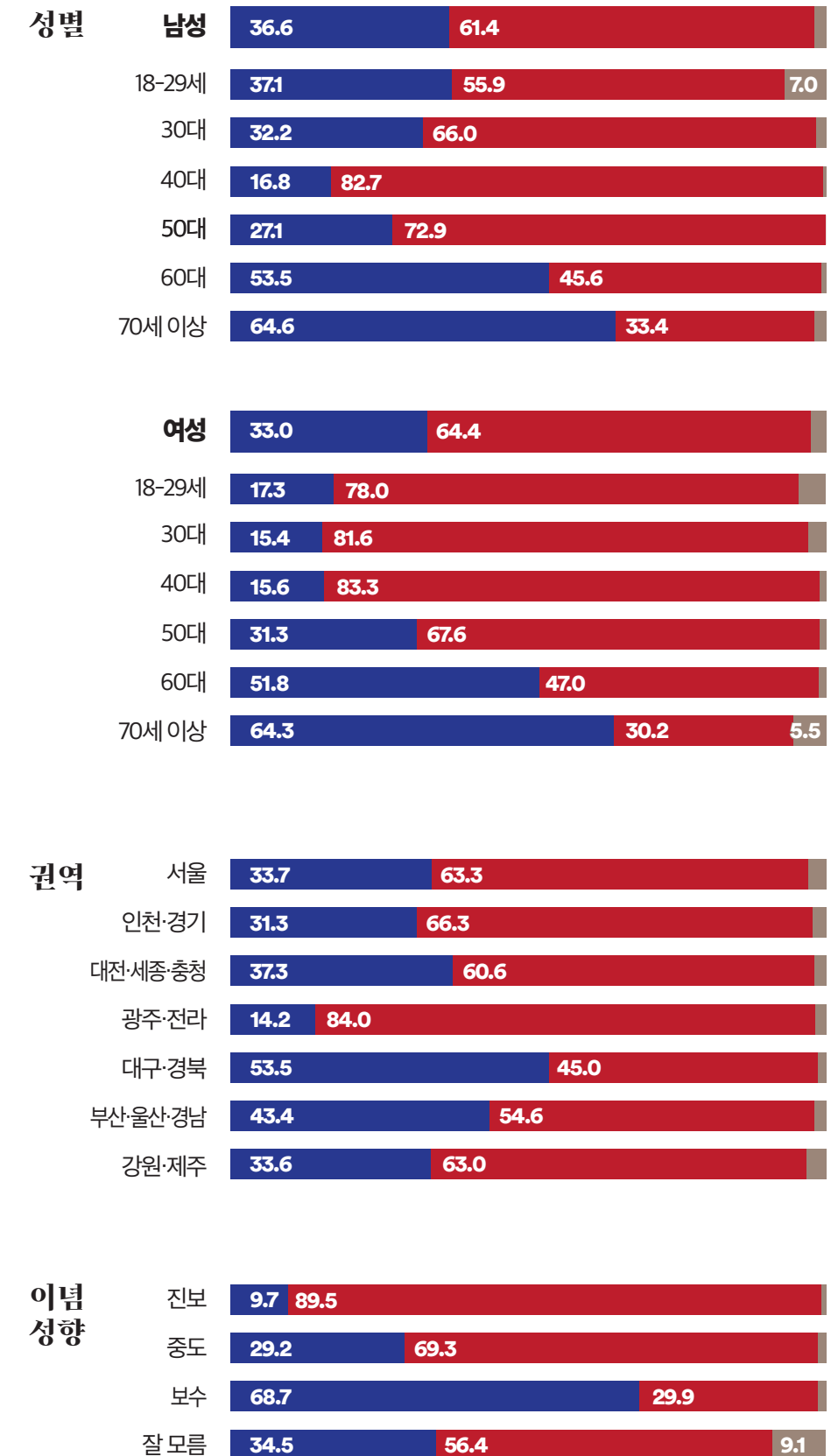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함
잘 못함
잘 모름

정당지지도



국정지지도



7월 통합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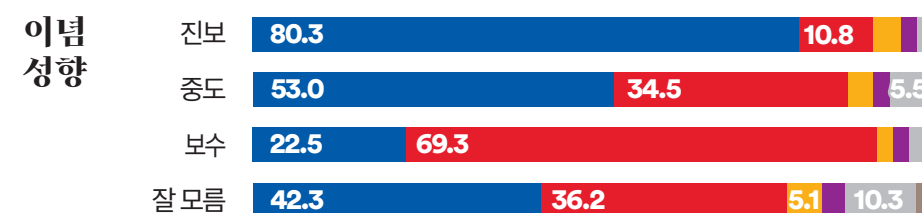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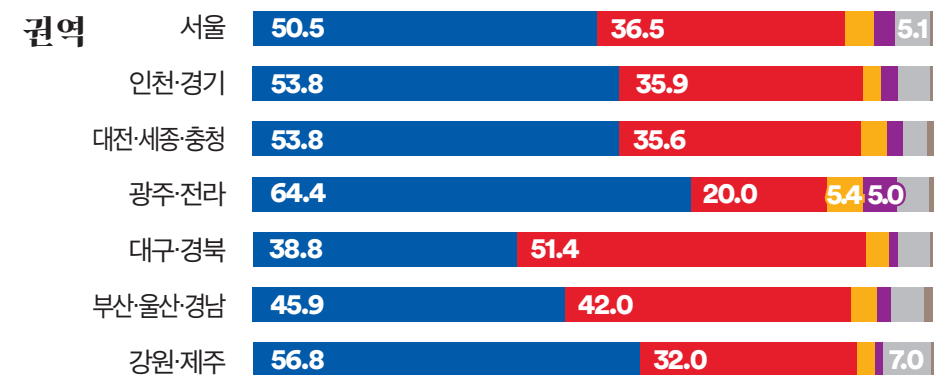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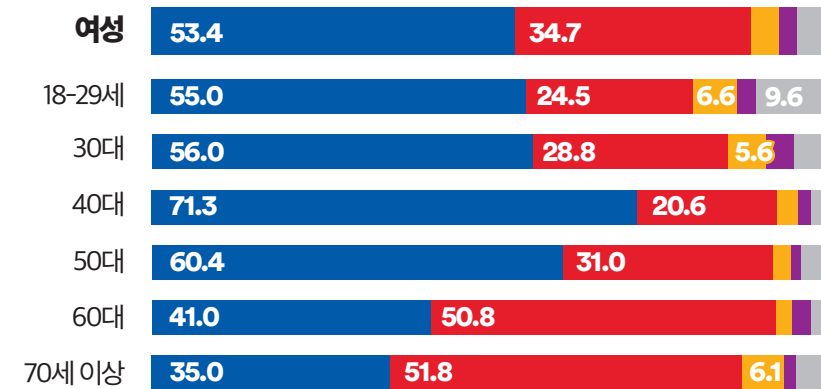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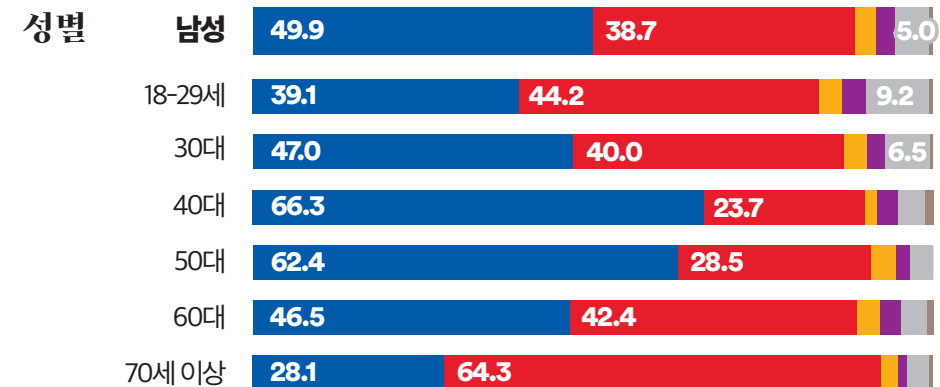
ARS

정례조사 기준 n=4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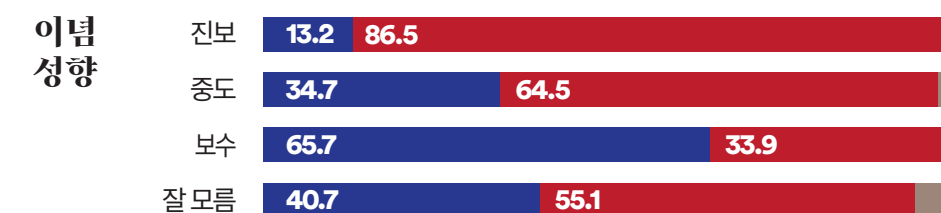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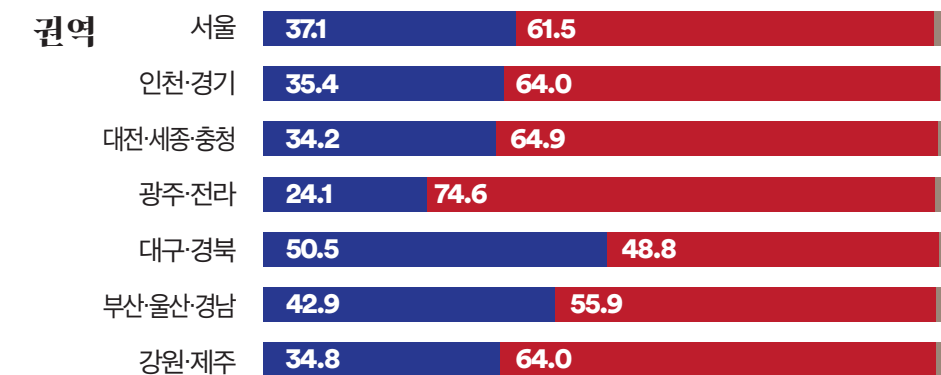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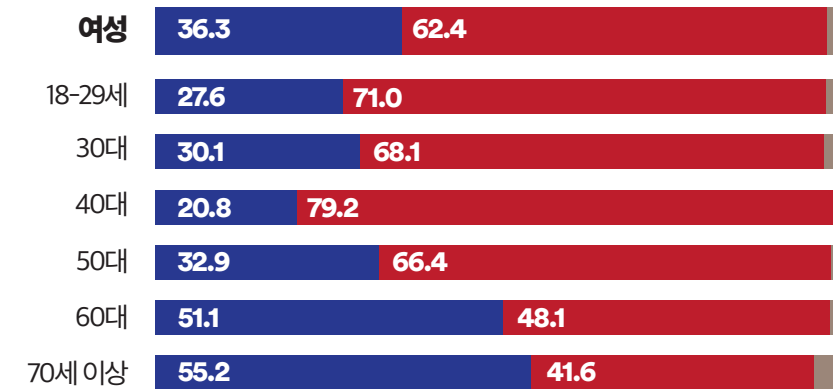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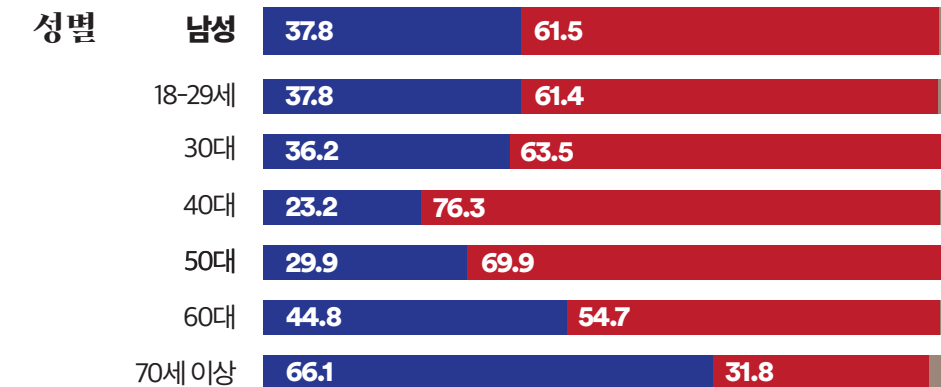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잘함
잘 못함
잘 모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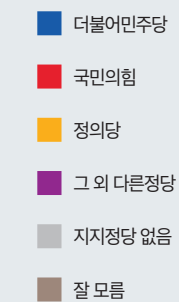
국정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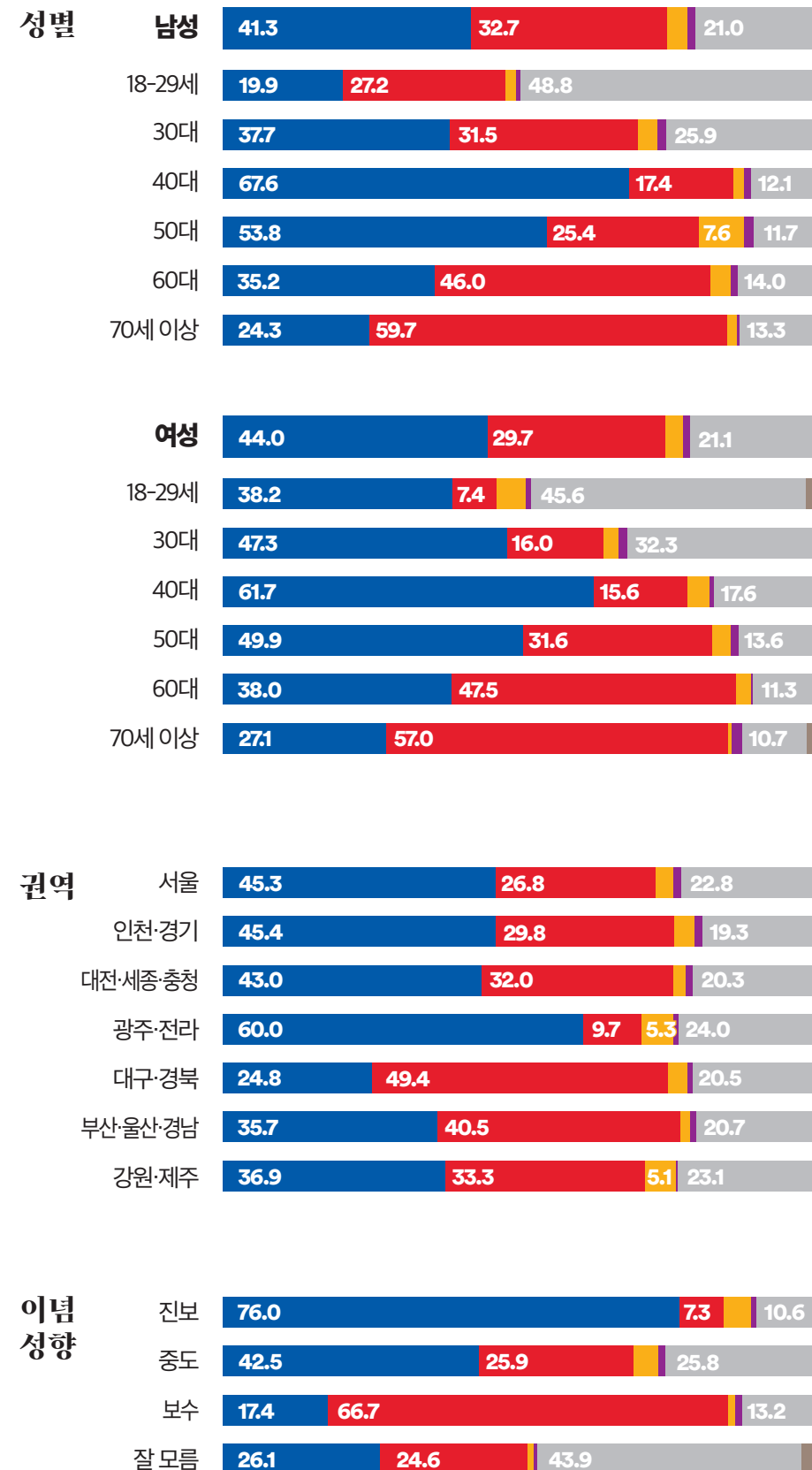
7월 통합 집계 정당지지도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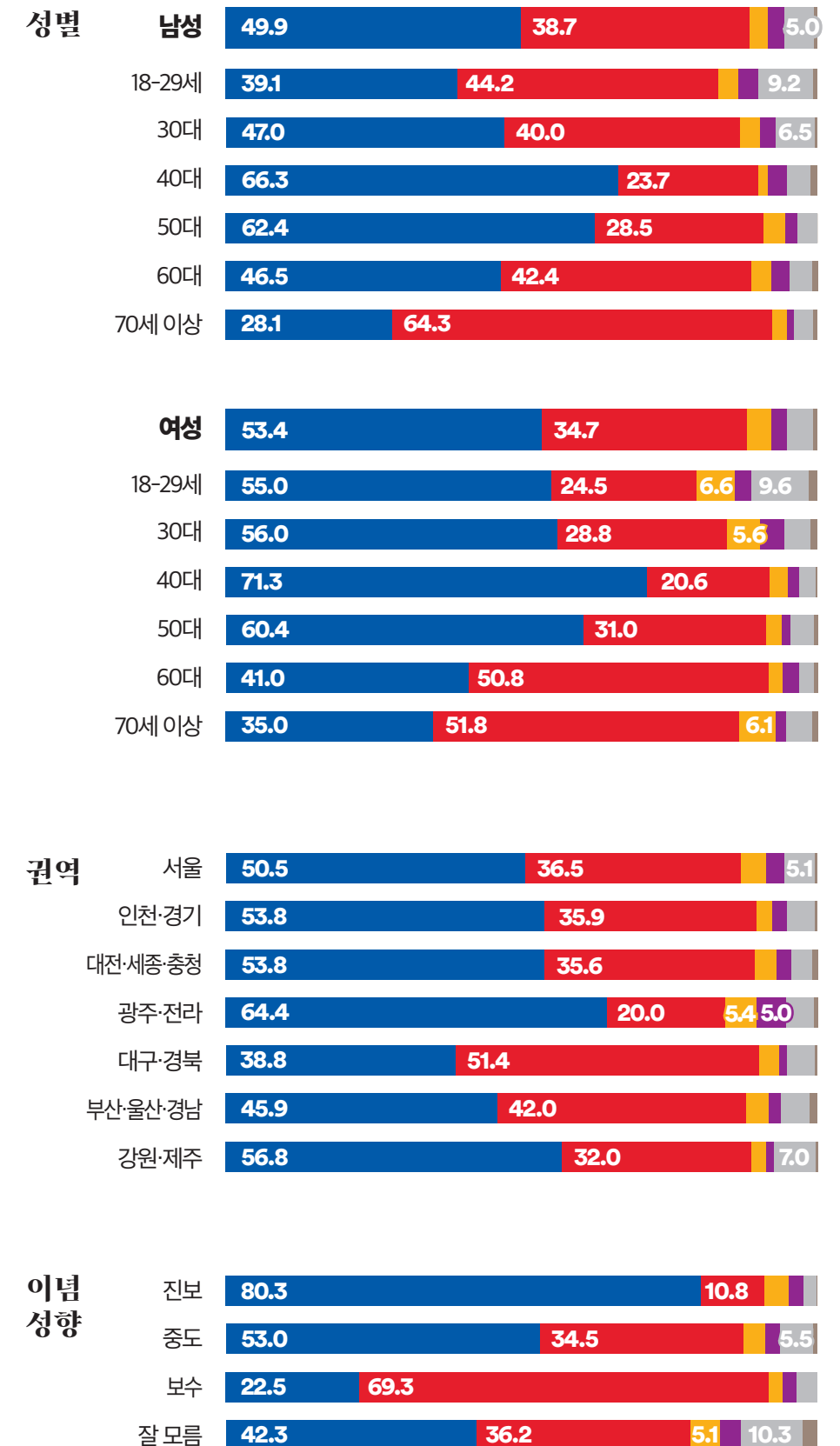
정례조사 기준 CATI *n*=4065
정례조사 기준 ARS *n*=4020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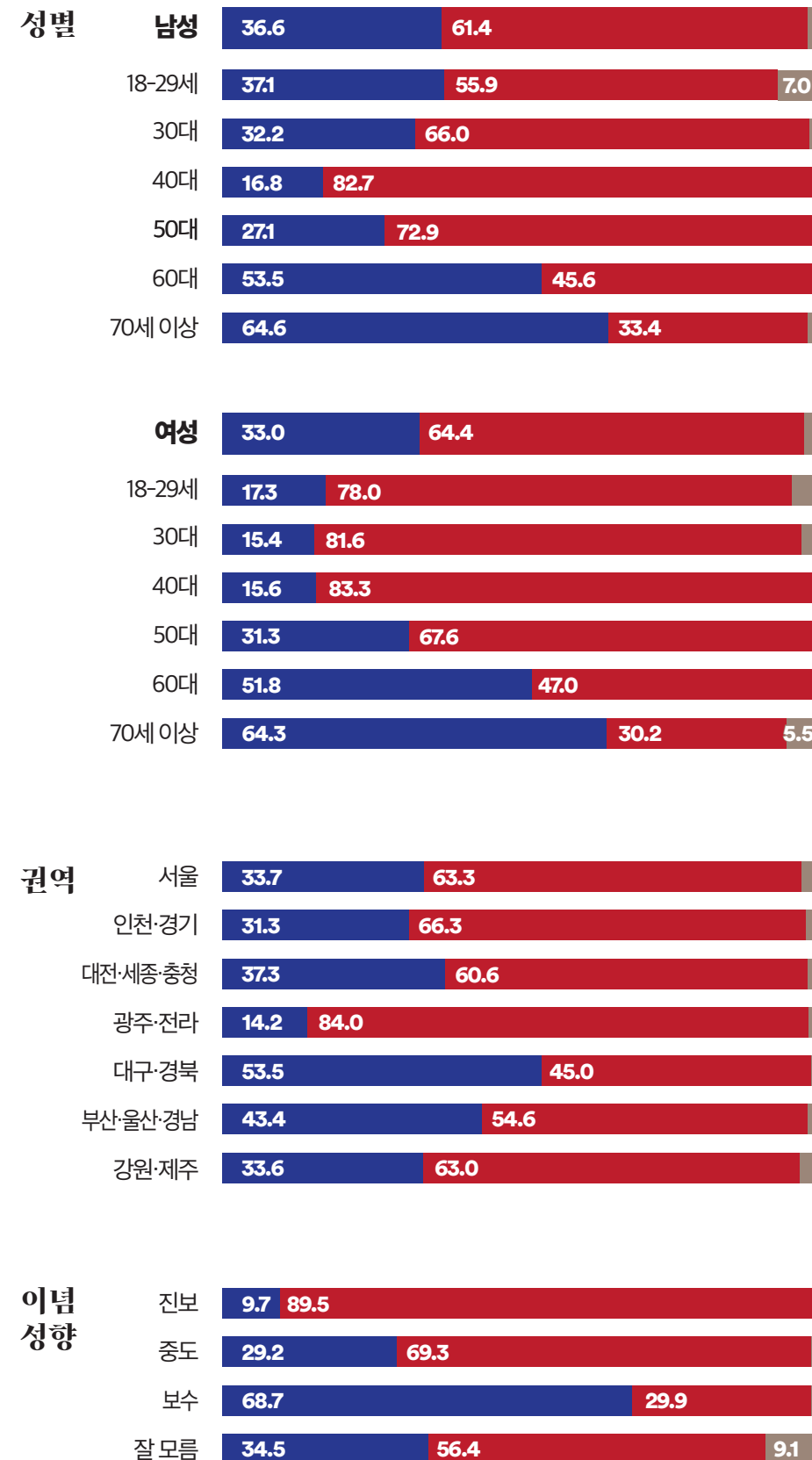
7월 통합 집계 국정지지도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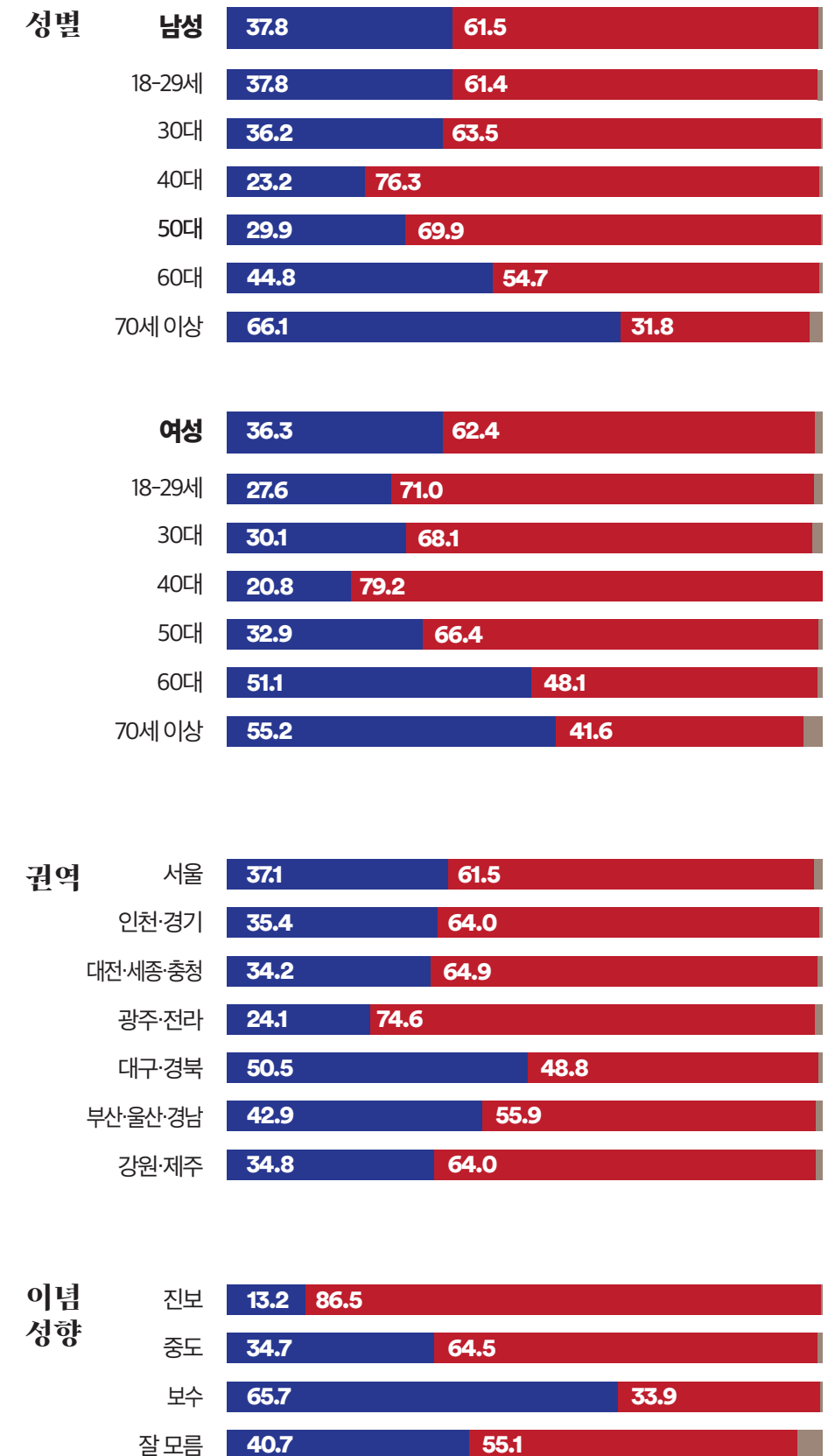
정례조사 기준 CATI *n*=4065
정례조사 기준 ARS *n*=4020

■ 잘함
■ 잘 못함
■ 잘 모름

CATI



ARS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308_01

여론조사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